학술 소식

분노 사회에 대한 불교적 해법 모색

불교평론, 26일 학술심포지엄 개최

한국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불교평론은 오는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회와 분노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창간 17주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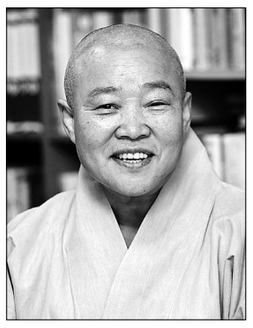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허우성 경희대 교수의 '붓다는 의분을 어떻게 보았는가'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분노의 불교사회학적 이해' △오용석 연세대 인문학연구원의 '선 수행에서 보는 분노 문제와 자비' △신승철 정신과 의사의 '심리학에서 보는 분노' △이혜숙 금강대 교수의 '구조적 폭력과 분노, 그 불교적 대응' △박재순 씨알사상연구소장의 '예수의 분노에 대한 생명철학적 이해'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암베드까르와 분노 그리고 불교'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개인적 · 사회적 분노와 치유의 길' 등이 발표된다.

불교평론은 "분노는 삼독 중 하나로 극복할 대상이지만, 때로는 사회 모순이나 폭력에 맞서는 정의 실현의 방법이기도 하다"면서 "이 같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우리 사회의 분노 현상에 관한 불교적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 강백 해주 스님 퇴임 강연

31일 학명세미나실… 의상 법성성기 사상 주제



동국대 최초 비구니 교수이자 정각원장인 해주 스님〈사진〉의 정년퇴임을 회향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부와 제자들이 마련한 이번 강연회는 오는 8월 31일 오후 3시 동국대 학명세미나실(문화관 2층)에서 진행된다.

이날 해주 스님은 '의상 스님의 법성성기 사상과 전승'을 주제로 지난 학문 성과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불교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주 스님은 운문사에서 성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학사승가대학과 동국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0년 비구니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동국대 교수에 임용돼 현재까지 후학들을 지도했다.

또한 조계종 제11 · 12대 중앙종회의원, 불교학연구회 초대 · 2대 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2007년 조계종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강을 받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중례 · 결수문' 발표 경제 소리 시연

경제어산硏, 25일 홍원사서

경제어산연구소(소장 정오)는 오는 8월 25일 서울 강서구 홍원사에서 '신찬 중례 · 결수문 발표 및 경제소리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어산연구소장 정오 스님이 '신찬 천지명양수륙재의문(약칭 중례 · 결수문)'을 보고하고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학술연구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시무형문화재 43호 경제어산 보유자 동주 원명 스님의 경제어산 시연이 이뤄지며, 손인애 서울대 한국음악학과 외래교수가 '경제어산 소리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인묵 · 법안 · 미등 · 윤소희 · 서정매 · 최형석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가나자와 문고 '보살계본소'가 最古 사본"

박광연 교수, 19일 '신라사본과 원효' 동국대 학술대회서

신라 의적 스님 찬술한 필사본
류코쿠대 판본보다 415년 빨라
韓불교전서본 비교… 더 정확해

사상사학회 · 金澤 문고 공동 주최
신라代 경전 연구논문 발표 '눈길'

〈보살계본소〉는 〈범망경〉의 주석서로 잘 알려져 있다. 신라 의적 스님이 찬술한 것으로 류코쿠대(龍谷大)에 소장된 '범망경의적소'가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하지만, 류코쿠대 소장본 보다 오래된 필사본이 연구를 통해 발표됐다.

박광연 동국대 HK교수는 8월 19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한국사상사학회 · 일본 가나자와 문고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라사본과 원효' 주제 학술대회에서 가나자와 문고본 〈보살계본소〉의 기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소묘지 소장 · 가나자와 문고 보관 의적 〈보살계본소〉의 기초 연구' 논문에서 가나자와 문고본 〈보살계본〉과 류코쿠대 소장본을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류코쿠대 소장본보다 가나자와 문고본이 415년 앞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류코쿠대 소장본은 목판본으로 1684년에 제작됐지만, 필사본인 가나자와 문고본은 1269년(문영 6년) 10월 21일에 제작됐다. 가나자와 문고본은 찬자 이름을 의적 스님의 '적(寂)'만 명기했으나 류코쿠대 소장본은 '신라사문 의적'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신라에서 출판된 문헌에는 찬자 이름에 국명이 들어가지 않은 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작성 · 출판된 글에는 신라인임을 명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가나자와 문고본이 보다 원형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나자와 문고본이 아쉬움 점은 상 · 하권 중 상권만이 남아 역사학계가 주목하는 48경계에 대한 의적 스님의 해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상권에만 새롭게 판독되는 글자가 200여 자가 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가나자와 문고본과 한국불교전서본을 대교한 결과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이체자를 포함해 700여 자, 이체자를 제외하면 200여 자가 차이가 있다. 이중 한국불교전서본이 맞다고 판단되는 글자는 16자에 불과했다"고 분석하면서 "이 수치는 정확한 번역 과정을 통해 변화할 수 있지만, 향후 가나자와 문고본을 토대로 '보살계본소'의 정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 김병곤 일본 미노부산 대학 교수는 '원홍 〈묘법화경론자주〉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신라 원홍 스님의 문헌이 일본 엔닌(圓仁)의 〈삼평등의(미노부문고 소장)〉에 인용된 사례를 처음으로 확인해 한국과 일본의 불교문헌 교류와 사상적 영향에 대해 살폈다.

도츠 아야노 가나자와 문고 주임 학예원은 '의상 〈화엄경문답〉의 텍스트 연구'를 통해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화엄경문답〉의 문헌상 문제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천학 동국대 HK교수는 '원효 〈대승기신론별기〉의 기초연구'를 통해 〈기신론별기〉의 유통상 문제와 기존 대장경 간본과의 교감결과를 밝혔다. 또한, 텍스트 비교를 통해 원효 사상에 대한 해석의 변화 가능성도 추측했다.

신성민 기자

깨달음 실천 · 구현하는이 '보디사트바'

〈Bodhi&Sattva〉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개정 〈깨달음과 역사〉 봉정
해인사 대중과 북콘서트도

"보디+사트바= 대승 불교"
스님들의 공부 방법과 내용
시대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8월 12일 열린 〈깨달음과 역사〉 개정증보판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대중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학자나 사업가, 정치인 등 세속의 일반인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영역을 바로 앞에 두고 살아가고 이를 구현하는 것 역시 '보디사트바(Bodhi&Sattva)'가 될 수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8월 12일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열린 〈깨달음과 역사〉 개정 증보판 봉정 및 북콘서트에서 불교적 이해에 대한 문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응 스님은 선원장 · 강사 · 학인 스님 등이 쏟아내는 질문에 차분하고 성실히 답했다.

'보편적 진리는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현응 스님은 "'불교는 진화한다'는 개념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진화는 가치중립적인 단어"라면서 "조건이 달라지면 환경에 맞춰 바뀌어가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 불교 역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적응되고 변화되며 시대적 삶 속에서 기능 · 구현 · 작동됐다"고 밝혔다.

'보디사트바'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스님은 "보살이라는 말은 '보디'와 '사트바'의 생략"이라며 "'보디'는 삶과 세상을 연기 · 공 · 무아 · 무상으로 보는 것이며, '사트바'는 삶과 세상이라는 역사를 말한다. 이 둘을 결합하는 일이 대승불교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승가교육에 대해서는 스님들이 시대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현응 스님은 "불교는 생로병사, '삶은 고행'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스님들은 진지하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사회 문제와 갈등에 대해 불교적 문제의식으로 가르침을 줘야 한다.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법과 내용 역시 먼저 문제의식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서 봉행된 봉정법회에서는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을 비롯한 총림 대중과 내빈들이 참석해, 현응 스님의 〈깨달음과 역사〉 개정증보판 출판을 축하했다.

향적 스님은 봉정사를 통해 "붓다를 사회라 표현하고, 보살의 삶을 역사라고 표현한 것은 혁명적인 사고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면서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깨달음과 역사〉는 지난 1990년 초판 발행 후 2009년 개정판에 이어, 2015년의 깨달음의 논쟁을 촉발시킨 '깨달음과 역사, 그 이후'와 '반론에 대한 답변' '기본불교와 대승불교' 원고를 새롭게 추가해 이번에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신성민 · 하성미 기자

원효 탄신 1400주년 학술대회 열린다

한국불교학회, 2017년 춘계대회 및 학술상 공모

2017년은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상 공모가 진행된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원효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사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하는 학술대회와 불교학술진흥상(논문공모전)을 시행한다"고 8월 18일 밝혔다.

'원효- 그 새로운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행사는 원효 스님의 사상, 철학, 문화, 이념 등 원효학 전반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한 모든 주제에 대한 논문 공모를 우선으로 한다.

원고 분량은 한글 200자 원고지 100~200매(각주 및 참고문헌 포함)이며, 영어는 1만 단어 이내다. 논문 제출 기한은 내년도 3월 31일까지며, 채택 공지는 4월 14일 이뤄진다.

제출된 논문은 심사해 대상 1명 500만원, 최우수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의 학술논문상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는 원효 탄신 14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내년 5월 12일 동국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02)2263-1973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4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범패 · 소리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설명 등 전 과정 간단한 이론 강의

■ **작법 · 무용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오후 3시 30분 ~ 5시)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진언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6년 8월 ~ 2016년 9월 2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8)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사)대한불교 現조계종 종도모집

본 종단은 석가세존께서 깨달으신 높은 진리를 세상의 모든 중생과 생명들에게 전하는 전법종단으로, 세상의 참생명들의 이익을 위해 정진하고자 하는 불제자 도반들을 종도로 모시고자 합니다.

◆ 총본산 총무원 : 용문사(광주 북구 월동로 58-11)
전화 062)531-3888 / 팩스 268-3889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 ▶ 여권사진 3매

입종 후 발행증서
- ▶ 승려증
- ▶ 사찰등록증
- ▶ 주지 임명장

(사)대한불교 現조계종